

## 麗末鮮初의 한중관계

김준석

- 몽골 지배(간섭기) 이후 15세기 세종 재위까지의 한중 관계사. 중국과 한반도에서 왕조교체. 전환기, 이행기.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로의 복귀 혹은 전형적인 조공-책봉 관계의 형성.
- 몽골 지배의 시작: 1259년 최씨 정권의 붕괴 이후 고종은 태자(후에 원종)를 중국에 보내 몽골과 강화하게 함. 당시 뭉케 카안의 사망 이후 아릭 부케와 내전 중이던 쿠빌라이와 1259년 12월 조우. 변량회합(汴梁會合). 쿠빌라이: “고려는 만 리 밖에 있는 나라로서, 당태종이 친정을 했어도 복속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내게 內歸하니 하늘의 뜻이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 六事: ① 의관은 本國之俗에 따를 것이며 상하가 모두 改易치 아니할 것. ② 行人은 조정에서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신은 일체 금할 것. ③ 출륙 환도의 지속은 역량에 맞추어 진행할 것. ④ 압록강 유역에 주둔하는 몽골병사는 가을 내로 철수 할 것. ⑤ 다루가치 일행은 西還토록 할 것. ⑥ 몽골 측에 사신으로 온 10여 명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속국 관계의 성립: 1268년 원종에게 전달된 조서에서 쿠빌라이 内屬之國의 의무사항을 통고. ① 인질의 송납(納質) ② 군사적 지원(助軍) ③ 세량의 납부(輸糧) ④ 역참의 설치(設驛) ⑤ 호구조사(供戶數籍) ⑥ 다루가치의 설치. 고려에 대한 육사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 국왕과 부마의 이중적 지위. 원종의 세자 謙(후에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과의 혼인으로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됨. 이후 공민왕대까지 총 6명의 몽골공주가 고려 국왕과 혼인. 고려 국왕의 청혼으로 성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쿠빌라이가 임연의 폐립으로 인한 고려의 이반과 남송과 고려의 연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제안한 고육지책의 의미도 있음. 부마 고려국왕印을 충렬왕에 하사. 이중적 의미. 외연적 존재인 속국의 국왕이라는 지위와 내포적 존재인 부마의 지위의 공존. 몽고 권력체계 내에서 고려 왕실의 위상 강화. 고려 국왕이 최고의 결회의인 쿠릴타이에 참석. 하지만 몽골에 대한 내속이 심화되어 지방정권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음.
- 1294년 쿠빌라이의 사망 이후 원과 서방의 칸국들이 사실상 분리됨. 이후 몽골은 고려를 속령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함. 征東行省의 구조적 변화. 일본 원정을 위한 군사기구로 설치. 두 차례의 실패 후 의례상의 활동에 국한됨. 1299년부터 增置됨. 이후 몽골의 고려에 대한 내정간섭기구로 기능. 이에 대한 고려 측의 대응은 ‘世祖舊制’의 강조.
- 1368년 명 건국. 공민왕의 반월·친명 정책. 공민왕 사망 후 우왕은 이인임이 주도가 되어 북원과의 관계를 강화. 1388년 나하주의 패배로 북원 멸망. 고려는 두 나라와 요동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치열하게 각축.
- 명은 건국 후 이례적으로 먼저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여 건국을 알림. 고려와 북원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1369년 공민왕을 고려국왕에 책봉. 1371년 후에 遼東都司로 발전하게 되는 遼東衛를 遼陽에 설치. 1373년 공로폐쇄조치. 고려 사신이 해로를 통해서만 명나라에 올 것을 요구. 고려의 요동 진출 가능성 차단, 북원과의 연합단절, 1372년 나하추가 요동 최대의 군수 보급 저장창고인 牛家莊을 공격하여 식량을 불태우고 병사 5천 명을 몰살시킨 사건 등. 북원은 지속적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협력을 요청.

- 1388년 압록강변에 鐵嶺衛 설치함으로써 여진 경략에 대한 의지를 보임. 이외에도 두만강변에 三萬衛 설치 시도. 철령위는 衛所制에 입각하여 전국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300 여개의 위 중 하나. 1衛는 5,600명의 군사로 편성. 고려에서 요동공벌론의 대두. 명나라 황제가 이 위를 설치하기 위해 무관들을 미리 임명하였고 그들이 모두 요동에 도착하였으며 요동에서 철령위까지 70개소의 站을 설피하고 白戶를 배치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우왕은 8도의 군사 동원을 명하고 신하들로 하여금 원나라 관복을 입게함. 최영, 이성계, 四不可論, 위화도 회군.  
① 압록강 유역이 명나라의 영토로 귀속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② 명나라의 공로폐쇄와 무리한 貢馬 요구에 대한 불만 ③ 여진 지역이 명나라의 판도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 등.
- 1370년 공민왕의 명을 받아 이성계가 기병 5천, 보병 1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북원의 東寧府 지역을 공격. 압록강 지역이 고려의 판도로 편입됨. 요양과 심양을 공격하여 요양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함. 결국 철령위는 요동 북부의 몽골족의 위협으로 압록강변에 설치되지 못하고 심양 동남쪽 奉集堡에 설치되었다가 다시 요동도사 북부 방어선 지역에 설치됨. 압록강에서 요양 남쪽 連山關에 이르는 180여 리가 고려/조선과 명 사이의 완충지대가 됨.
- 조선 건국 후 홍무제는 명이 북쪽의 몽골세력과 전쟁을 계속하는 틈을 타 조선이 요동을 공벌할 가능성을 경계. “조선은 국도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하는 식량이 1만석에서 10만 여석에 이르고 동녕부의 여진인을 유인하고 있으며 반드시 음모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요동은 지금 군량이 모자라며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는바 .. 그들의 20만 대군이 요동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 영락제 등극 이후 명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 두만강 유역의 10處 여진을 招諭하겠다는 의사 를 전달. 조선은 명나라에 앞서서 적극적인 여진 招撫정책을 전개. 여진을 藩籬로 표현. 세종: “이제 童孟哥帖木兒가 와서 보기자를 청한다.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우리 영토 안에 살고 있어 우리의 번리가 되었으니 마땅히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하셨다. 또 楊木答兀은 인종황제의 칙명을 내려 말하기를 ‘양목답을은 너의 국내에 들어간 자이니 도망한 자를 너희 나라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 사람은 본래 양목답에 비길 사람이 아니니 명나라가 비록 알게 되더라도 무엇이 도리에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이제 의를 사모하여 보기자를 청하니 그의 마음은 칭찬할 만하다. 그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Korea's own tributary system”.
- 명은 조선과 여진의 결속이 요동의 안정을 해치고 국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조선은 명의 시도에 크게 반발. 여진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 보다는 조선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컸음. 동맹가첩목아의 입조 문제. “맹가첩목아는 어째서 보내지 않고 도리어 와서 計稟하는가? 네가 와서 계품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지면사정을 자세히 말하면, 어찌 허가하지 않겠는가? 누가 너희와 地面을 다투자는 것인가?  
네가 돌아가서 국왕에게 말하여 알려서 곧 그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 결국 1408년 명은 조선이 요청한대로 公險鎮 이남지역에 대한 조선의 지배권과 십처여진에 대한 관할권을 승인. 세종: “고려의 윤관은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소탕하여 州鎮을 개척해 두었으므로 여진이 지금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위엄을 칭찬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관이 주를 설치할 적에 길주가 있었는데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황제가 조선지소를 보고 조서하기를 ‘공험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